

해온이의 서구 역사여행 18

광천동의 꿈

최 혁 지음

도움말

김정호

김진수

임철진

정인서

사진제공

민상준

박소영

서구 광천동 주민센터

윤상원기념사업회



광주 서구 캐릭터 ‘해온이’를 소개합니다.

‘해온이’는 서구의 상징 새인 해오리와 따뜻한 온(溫)이 합쳐진 것으로 따뜻한 서구를 상징하며 빨간 볼은 따뜻한 마음씨를, 두 날개는 높은 비상을 의미합니다.

광천동의 꿈

- 서구 광천동의 역사

광주가 ‘빛고을’인 것처럼 광천은 ‘빛나는 물’이다.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광천동은 도시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곳이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유스퀘어 광주버스터미널이 자리하고 있다.

해운이는 광주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면서 광주의 인상을 한아름씩 담고 간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광주에서 무엇을 기억했을까. 참으로 궁금했다. 문화도시라고 하던데, 빛과 생명의 도시라고 하던데,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라고 하던데 그런 것들을 느꼈을지 궁금했다. 해운이는 오랫동안 광주를 지켜봤지만 안타까울만큼 광주에서 그런 모습을 보기



▲ 광천동 전경

힘들었다.

그 옆에는 광주신세계백화점이 있다. 백화점은 풍요의 상징이다. 쇼핑과 영화를 즐기러온 사람들이 끊임없이 백화점과 광주버스터미널(유스퀘어) 건물로 들어간다. 백화점과 버스터미널에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표정이 넉넉하다. 몸짓에도 활기가 넘친다.

반면에, 광천동사무소가 있는 쪽은 착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다.



▲ 극락천에서 바라본 광천동

송원학원이 송암동으로 이전하면서 들어선 아파트들이 대로변에 쪽 늘어서 있어 겉으로 보기에 번듯한 동네 같다. 그렇지만 아파트 건물 뒤에는 빈한한 도시의 뒷골목이 자리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초라한 동네였지만 최근 들어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곳곳이 빈집이어서 을씨년스럽다. 한 집 건너 들어선 부동산 가게가 이곳에 재개발 광풍이 불고 있음을 알려줄 뿐이다.

해운이는 광천동이 수 삼 년 이내로 ‘서울의 강남’ 같은 잘사는 동네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가난의 상징이었던 광천동이 부의 상징이 되고 있다. 광천동 사람들은 ‘광주 봉선동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는 잘 나가는 사람들로 인식될 것이다. 광천동은 교통과 쇼핑, 명품 주거지의 중심이 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동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상전벽해(桑田碧海: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된다는 말로 너무도 많이 달라진 것을 뜻함)의 현장이다.

■ 광천동의 역사

원래 예전의 광천동 땅은 광주천과 신안천이 만나는 지점에 만들어진 삼각주였다. 퇴적물이 쌓여져 생긴 버려진 땅이었다. 독섬 밖, 혹은 독섬 안으로 불리던 쓸모없는 땅이었다. 자연적으로 생긴 제방에 인공적으로 독을 쌓아 범람을 막으면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변했다. 큰물(홍수)이 날 때마다 독이 무너지고 그래서 자주 쌓아야(방축지대) 했기에 안방축(內防), 혹은 새방축(새방천:新防)라 불렸다.

광천동 일대는 조선시대 1789년에 군분면(軍盆面) 내방리(內防里)였다. 당시 군분면에는 연예·신흥·내동·신방·택동·노치·쌍촌·송정·효사·신기·계수·중작 등 열두 동네가 자리하고 있었다. 1914년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군분면의 내동·송정·신방·쌍촌리와 황계면의 대자리 일부가 내방리가 돼 광천군 극락면에 속하게 됐다. 광천이라는 이름은 광주천(光州川)에서 州를 빼고 광천(光川)이라 부른데서 비롯됐다.

1935년 광주읍을 확장할 때 내방에 속해 있던 화정 일부와 송정, 신방 등 냇가 쪽만을 떼어내 광천정(光川町)이라 했다. 광복 후인 1946년에 일제잔재를 없앤다는 취지로 광천정을 취락동(就樂洞)이라 잠시 부르기도 했다. 1947년에 광천동(光川洞)으로 개칭됐다. 1955년 광산군 극락면이 광주시로 편입되면서 내방동 중 신방리가 광천동에 편입됐다. 1961년 서구출장소 관할이 됐다가 1986년 광주직할시 서구 광천동이 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의 신안동에서 유덕동으로 이어지는 광주천·극락천

일대에는 넓게 펼쳐진 빈 땅이 많았다. 일제는 강변 일대에 전라남도 종묘장과 면화시험장을 세웠다. 종연방직공장도 들어섰다. 해운이는 일자리를 쫓아 시골처녀들이 몰려와 광주천 건너편인 발산마을과 내방마을(광천동)에 방을 얻고 사는 모습을 지켜봤다. 농사꾼들만 모여 살던 내방마을에 외지 사람들이 몰려와 살기 시작한 것이다. 광천동의 빈한한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다.

■ 광복 후의 광천동

광복 후 광천동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와 판자 집을 짓고 살았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광복 후 전라남도 면화시험장 부지에는 각종 공장이 들어섰다. 어망공장을 비롯 제분공장, 물엿공장, 타월·섬유공장, 철물 공장들이 자리했다. 자연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들이 몰려들었다. 광천동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판자 집 동네로 틀이 짜여버렸다. 그런데 1950년 6·25전쟁으로 피난민들이 몰려오면서 판자 집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났다. 거대한

판자촌이 돼버린 것이다. 70년대 한국사회는 고도성장에 매달렸을 뿐 근로자의 복지나 임금수준에는 관심이 없었다. 기업들은 저임금으로 근로자들을 부려먹었다. 광천동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공돌이’ ‘공순이’가 모여 사는 동네가 됐다. 1960~70년대 직공들은 배움에 목이 말랐다. 낮에 일하고 저녁에는 어떻게든 공부를 하려 했다. 1964년에 광천동에 숙문여자초급대학원이 생겨 여공들의 배움의 터가 됐다. 고제철씨가 이 학교를 인수해 송원중·고, 송원여중·여고, 송원여상고, 송원초교, 송원전문대 등을 차례로 설립했다. 광천동에 들어선 송원학원 타운은 광천동을 빈민촌 일색의 동네에서 여러 학교가 들어서있는, 그런대로 괜찮은 동네로 탈바꿈 시키는데 일조를 했다.

송원학원은 광주시 남구 송하동으로 학교이전을 추진, 지난 2003년 송원고를 시작으로 2004년 송원여고, 2006년 10월 유치원·여상고·대학, 2006년 12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모두 옮겼다. 광천동 옛 송원학원 부지 2만5천여 평에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다. 광천동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변모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 광천동 시민아파트와 80년 광주항쟁(광주민주화운동)

광천동은 화려한 경제발전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던 곳이다. 저임금과 직장폭력에 시달리던 근로자와 날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빈민층들이 판자 집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곳이었다. 정책과 인권의 사각지대였다. 광천동의 슬럼화에 문제의식을 느낀 광주시는 1970년 광천동 판자촌을 정비하면서 9평짜리 서민아파트 3동을 지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9평짜리 서민 아파트는 나름대로 품이 나는 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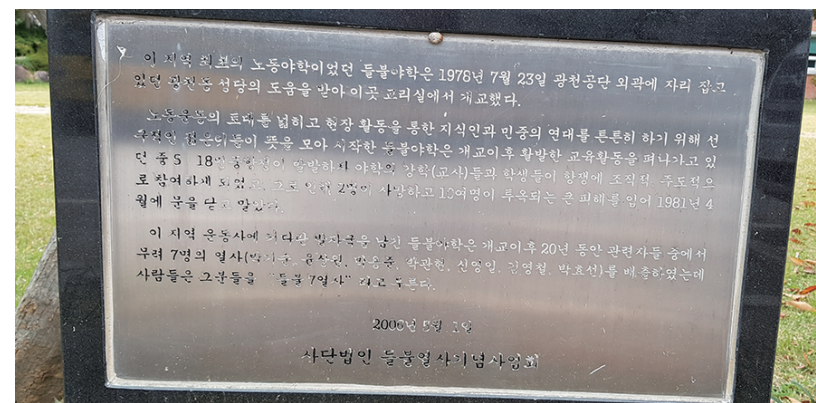


▲ 광천동시민아파트

그러나 70년 이후 이태리식 주택보급이 크게 늘고 90년대에 광주시내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광천동 서민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볼품이 없어졌다. 광천동 주민 중에서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얻어 모두 빠져나갔다. 남은 사람들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 결국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생계능력이 전혀 없는 기초수급자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가 돼버렸다.

해운이가 지켜본 광천동의 가장 이슈는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광천동 시민아파트이다. 윤상원기념사업회 회원들을 비롯 광주의 뜻있는 인사들은 평등과 민주수호의 뜨거운 정신이 담겨 있는 광천동 시민아파트가 헐리게 되는 것을 무척 마음아파하고 있다.

시민아파트에서는 광주·전남 최초의 노동야학인 들불야학(1978년 7월~1981년 7월)이 시작됐다. 80년 5·18 당시에는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자는 <투사회보>가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시민아파트에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시달리며 배움에 목말라 하던 근로자들을 위해 젊음과 열정을 불태웠던 광주 청년들의



▲ 들불야학의 주인공 윤상원 열사(위)
광천동성당 교리실에서 들불야학이 처음 시작됐음을 알리는 안내문(아래)

고귀한 삶이 배어있다.

윤상원은 박기순이 주도한 들불야학에 참여하면서 이곳에 입주했다. 박관현과 김영철 등이 들불야학 강학이었다. 들불야학은 시민아파트 옆에 있는 광천동 성당 교리실에서 출발했으나 1979년 1월 다동 2층 방으로 장소가 옮겨졌다.

그리고 전두환 독재정권의 불의함을 고발하면서 광주시민들이 모두들 맞서 싸우자고 호소했던 <투사회보> 역시 이곳에서 제작됐다. 민주주의 상징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 역시 시민아파트에서 일어난 사연을 배경으로 해 지어졌다. 부를 때마다 우리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광천동 시민아파트가 태동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 부조리를 헤쳐가려는 가슴 뜨거운 청년들의 사랑과 투쟁이 담뿍 담긴 곳이다.

그러나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광천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2019년 하반기에 철거될 예정이다. 어떤 의미에서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구 전남도청과 같은 5·18유적지이자 광주지역 사회운동의 요람이다. 그런데 구 전남도청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도 광천동 시민아파트의 기념화 사업에는 시큰둥한

것이 사실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들불야학이 시작된 광천동 성당은 재개발 사업 구역 안 존치구역에 포함돼 원형보존 된다는 것이다. 해운이는 시민아파트 3동 가운데 1동 만이라도 보존 존치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8년 10월 16일 열린 서대석 서구청장의 '광천동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들불야학이 대화의 주제로 삼아졌다. 이날 지역원로 김형채씨는 서대석 청장이 40년 전에 광천동 천주교에서 들불야학 강사로 있으면서 광천동 공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 서구청장 취임 후 광천동을 방문해 들불열사와 관련된 추억을 나누고 있는 서대석 청장(좌측)

공부를 가르쳤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소개했다.

김형채씨는 들불야학 강사들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광천동 청년들과 함께 생활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말이 계속되면서 서청장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아마도 가난하고 아팠던 그 시절의 추억과 함께 지금은 대부분이 저세상 사람이 돼버린 들불야학 선배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 광천동 공업단지와 기아자동차

광천동은 또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정부는 1966년 7월 25일 광천동 일대 80여만 평을 공업단지조성지구로 결정 고시했다. 당초는 80여만 평에 공업단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실시계획 때 아세아자동차공장부지로 32만227평, 중소기업단지 11만 5,419평으로 축소됐다. 전체 단지중의 73.5%가 자동차공장 부지가 된 것이다. 중소기업단지에는 기존공장 11개를 비롯해 모두 53개 업체가 입주했다.

1966년 12월 16일 광천동에서 광주공업단지 및 아세아 자동차 공장 기공식이 열렸다. 그러나 아세아자동차공장은 1969년 경영상의

이유로 경상도기업인 동국제강에 넘겨졌다. 1976년 기아산업으로 바뀌었다가 오늘날 현대자동차그룹이 경영하고 있는 기아자동차가 됐다.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국내 최고이다. 과거 저임금에 시달리던 여직공들이 일하던 광천공단이 40여년 만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장 터가 된 것이다.

기아자동차공장은 광주경제를 좌우하고 있는 가장 큰 업체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도입돼 광주공장이 증설되면 지역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실현의 관건은 광주시가 제시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기본골격 ‘주 44시간 근무 초임 3천500만원’에 대한 노동계의 수용여부다. 이런저런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지혜를 모아 성사시켜야 한다.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꿈꿨던 들불야학이 시작된 광천동인 만큼 상생의 지혜가 발휘돼야 한다.

■ 광천동 버스터미널

광천동버스터미널은 1992년 7월 1일 개통됐다. 그 이전에 광주시



▲ 대인동에 있었던 버스터미널 모습(위)
1995년 즈음 광천동터미널 일대 모습(아래)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은 각각 대인동과 신안동에 분리돼 있었다. 서로 떨어져 있어 이용이 불편했으며 특히 도심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 교통 혼잡이 극심했다. 이에 호남고속도로 진출입로와 가까운 서구 광천동으로 시외·고속버스를 통합해 종합버스터미널을 만들었다. 1992년 개장당시의 면적은 100,711 제곱미터(3만 465평)로 최대 9만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광천동 광주버스터미널 개장을 계기로 광천동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사람 많은 곳은 자연 쇼핑과 유흥시설이 들어서기 마련이다. 광천터미널 바로 옆에 1995년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섰다. 이마트도 2006년에 세워졌다. 그 뒤편으로는 각종 숙박 시설과 음식점 등이 빼곡하게 자리하게 됐다.

예전의 공업단지가 사람들이 들고 나가고, 쇼핑하고 쉬며 즐기는 장소가 된 것이다. 해운이는 예전 공단지역 젊은이들의 모습이 이제는 활기찬 쇼핑하는 젊은이들과 여행하는 젊은이들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광천터미널에는 2005년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벌어졌다.



▲ 탤런트 한혜숙이 광주고속에 일일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모습(1975년)

금호산업은 종합버스터미널 개장 13년만인 2005년 200억 여 원을 들여 버스터미널 현대화를 위한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을 벌였다. 터미널 냉난방 시설이 모두 교체됐으며 화장실도 최신 시설로 바뀌었다. 특히 승객·시민들의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됐다.

광주 신세계백화점과 연결된 승객 하차지 840평이 서점과 음식점 등

편의시설로 꾸며졌다. 직행과 고속버스표를 통합해 발매하는 매표소도 들어섰다. 또 서점과 터미널 승차장 사이의 넓은 공간에는 만남의 광장이 마련됐다. 터미널 건물 바로 앞 광장에는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이나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이용토록 했다.

대대적인 보수공사와 함께 광주버스터미널은 유스퀘어(U Square)로 이름이 바뀌어졌다. 유스퀘어는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버스터미널이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보다 규모가 크다. 규모도 규모지만 유스퀘어가 지난 장점중의 하나는 이곳에 들어선 유스퀘어문화관(U.SQUARE CULTURAL CENTER)이 광주지역 문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유스퀘어문화관은 6층 규모로 연면적이 2만 5121.6㎡에 달한다. 서울 금호아트홀의 시설 및 운영의 강점을 그대로 도입했다. 다목적의 가변형 공연장 동산아트홀을 비롯 이 지역 미술계 인재 발굴에 기여하고 있는 금호갤러리, 전국최초 디지털 IMAX 영화관 등으로 꾸며져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유스퀘어를 광주의 문화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금호터미널 김현철 사장의 의욕과 열정은 대단하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따뜻한



▲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광천동모습(윤상원기념사업회 김진수씨 블로그 캡처)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의 여러 가지 전시 및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형 공연을 여는데도 열심을 내고 있다. 유스퀘어문화관은 소통과 나눔의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광천동 재개발의 명암

광주 광천동 재개발 사업은 지역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다. 광천동 재개발 사업은 효광초등학교와 광천시장 일대 42만6380㎡에 지상 10~34층 규모의 아파트 48개동 5천351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원 숫자만 2천346명에 달한다. 2019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될 예정이다.

광천동 재개발이 완료되면 이 지역은 기존의 버스터미널·신세계 백화점·이마트·CGV 등 시설에 대규모 주거시설과 주상복합시설, 언론사 건물 등이 더해져 대단한 광주 부도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나 강남과 같은 교통·문화·주거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천변 늪지대에서 공업단지로 변했던 땅이 ‘광주의 황금지대’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조합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또 땅값 상승으로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많은 영세 상인들이 광천동을 떠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내야하는 부담금 때문에 분양권을 팔고



▲ 임철진 광천동장

떠나는 원주민들이 많다.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을 위한 재개발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의 치부를 위한 재개발 측면이 도드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운이는 이런 모습이 토착민을 몰아내는 하나라고 본다. 재개발이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광천동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는 이가 임철진 광천동장이다. 임철진 동장은 부임 후 주민들과 밀착소통을 하고 있다. 매일처럼 광천동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다.

임동장은 출근 후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나면 곧바로 동네를 한바퀴 돌곤 한다.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인근 주민들과 함께 치우기도 한다. 임 동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 과정에 있는 광천동의 안전문제다. 재개발 과정중이어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빈집이 많다. 관리가 되지 않아 동네가 더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빈집이 범죄 장소로 사용될 우려도 높다. 임 동장은 광천동이 별다른 사고 없이 전국최고의 명품동네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다. 광천동 어느 골목, 웃음기가득한 얼굴의 어떤 중년의 사나이가 몇명의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쓰레기를 치우고 있으면, 그는 십중팔구 임철진 동장일 가능성이 높다. 해운이는 임 동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저절로 즐거워지는 꿈을 꾀다.